하림, 새해 '사랑의 헌혈' 로 생명나눔 실천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2026년 새해 첫 업무를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로 힘차게 시작했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지난 2일, 익산 본사를 비롯한 각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사랑의 헌혈 시무식' 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하림의 '사랑의 헌혈 시무식' 은 겨울철 헌혈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하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헌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하림 본사와 정읍공장, 사육본부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시무식을 마친 후 헌혈 버스에 올라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으며, 십시일반 모은 헌혈증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한편, 하림은 이날 시무식을 통해 2026년 경영 목표를 공유하고, 혁신과 성장,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새해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참배에는 유효선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학사 및 팀장 등 직원 20명이 참여했으며,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효선 교육장은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라사랑과 역사 인식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교육지원청은 이번 참배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호국보훈의 의미를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보훈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표고버섯 재배 교육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5일 표고버섯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씨네 표고농원 채충석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표고버섯의 고품질 수확과 재배 기술에 대해 강의로 진행하며, 산주·임업인들의 표고버섯 판로 확보 및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 성림운수사 등, 무주군에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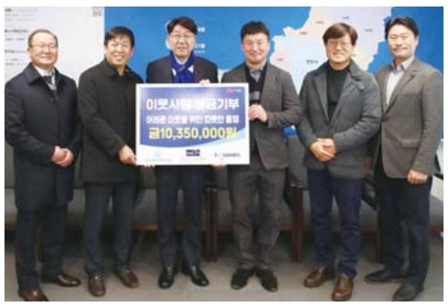
무주군에 소재한 (유)성림운수사(대표 성국헌), 무주행복운수 협동조합(대표 송통헌), (유)성림고속관광(대표 김은미)가 5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인재가 곧, 무주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자 씨앗"이라며 "지역 기업으로서, 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무주군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운행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소공인·뿌리기업의 사랑나눔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 등 새해 맞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주시는 5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회장 태현진)와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회장 김강석)가 새해를 맞아 전주시복지재단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35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현진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장, 김강석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장을 비롯한 전주지역 금속가공 뿌리기업인과 소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금속가공 분야 소기업들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설립한 단체로, 소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는 지역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생산품 발굴을 위해 지난 2024년 설립 이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성금 기부는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 소속 46개 회원사와 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 소속 15개의 회원사가 마음을 모아 독거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해마다 소속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성금을 모아주신 뿌리기업과 소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전주시는 뿌리기업을 비롯한 소공인 관련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티와이엠·한솔홈데코, '푸른익산' 조성 동참

나무심기 성금 각 1000만원씩 기탁 공단철물 성금 500만원 기탁도 이어져

익산시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5일 ㈜티와이엠과 ㈜한솔홈데코가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 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공단철물도 참여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해 푸른익산 가꾸기에 힘을 보탰다.

전달된 성금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티와이엠과 ㈜한솔홈데코는 평소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기업이다.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실천했다.

㈜티와이엠과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푸른익산 만들기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익산시의 녹색환경 조성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푸른 도시 익산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방공기업 최초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결실'

전북개발공사,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수상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개발공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도민 태양광, 수소충전소, 서남권 해상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도내 송·배전망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발굴해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군산 금광행복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2026년부터 발전시설 운영 이익 전액을 공용 관리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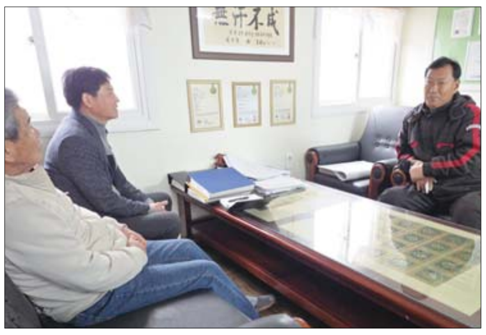
김대근 사장은 "이번 표창은 전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미래 실현을 위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북 자치도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향교동 '희망 2026 나눔' 접수 성금 총 1400만원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현목)에서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답지하며 사랑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향교동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접수된 성금은 총 1,400만 원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관내 기업, 단체, 그리고 익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얻어낸 결실이다.

성금 모금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기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금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물품 기탁과 봉사 활동도 이어져 감동을 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경영전기건설산업, 산동면에 성금기탁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해 12월 29일 관내 경영전기건설산업(대표 김경영) 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1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경영 대표는 "자신도 불우한 시절이 있었고 기회를 얻어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며, 혼자 해낸 것이 아닌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작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김경영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종주 신임 농협 남원시지부장 부임

NH농협 남원시지부는 202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종주(49) 신임 지부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김종주 지부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북 호남고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와 전북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거쳤으며, 1994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과 농업·농촌 지원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김 지부장은 부임 소감에서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정신을 모든 업무의 출발점으로 삼겠으며, 남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남원을 만드는 데 농협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흑염소협회,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는 5일, 남원시 흑염소협회(회장 우의철)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5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흑염소협회는 2010년경 지역 내 흑염소 농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현재 52곳의 농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우의철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단체로서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으며, 이성호 부시장은 흑염소협회에 감사를 전하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나눔을 진행하며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063-620-6333)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구면, 이웃사랑 실천으로 새해 희망의 문 열어

김제시 금구면에 2026년 새해를 밝히는 따뜻한 나눔 소식이 전해졌다.

금구면행정복지센터는 5일 한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10kg) 30포(12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초등학생 자녀가 평소 용돈을 아껴 모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탁된 후원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6년 새해, 아이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나눔과 가족의 동참이 어우러져 금구면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전기화재 예방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남철희)는 겨울철 난방기기와 전기제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 2,743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555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해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열기 등 계절용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시민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겨울철 난방용 전기제품의 안전사용 수칙 홍보와 함께 안전 캠페인, 전기제품 사용 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인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남철희 남원소방서장은 "전기제품은 편리한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난방용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 내방

▲이종훈 완주부군수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